전남 중부권

영산강 골재 판매수익금 적다 했더니…

〈100억 예상→ 26억여원 수익〉

장부엔 지난 8월 31일자로 "재고량 없다" 반출 종료
실제론 25t 트럭 20여대 지난달 23일까지 수시 반출
밀반출 의혹 제기에 나주시 등 관계기관 무대응 일관

나주 '영산강 살리기 사업' 구간에서 준설골재가 밀반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나주시를 비롯한 감독기관 등이 무대응으로 일관,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나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익산지방관리청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 구간인 3-5공구에서 발생된 준설 골재 189만1000㎥의 선별 판매 업무를 해당 지자체인 나주시에 업무협약을 통해 이관했다.

나주시는 이에 따라 금천면 고동리 인근에 적치장을 마련했으나 현장을 운영할 전문 토목직 공무원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 5월께 전남개발공사에 업무를 재위탁시켰다.

업무를 위탁받은 전남개발공사는 선별과정을 거쳐 모래와 25mm 이하 자갈은 유료 판매했으며, 상품성이 없는 25mm 이상 자갈의 경우만 민간 사업자와 공공사업장 등에 무상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공사의 지난 8월 31일자 '골재 선별 및 판매사업 일보'에 모래와 25 mm 이상 자갈은 더 이상 재고량이 없는 것으로 기록돼 외부 골재반출 또한 종료된 상태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날부터 20여 일이 지난 지난달 23일까지 공사 현장에서는 25 t 덤프트럭 20여대가 수시로 골재를 반출하고 있는 것이 직접적으로 목격돼 밀반출 의혹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사실 확인을 위해 지난달 23일 오전 9시 30분께 현장을 방문, 직접 확인한 결과 불과 30여분만에 25t 덤프트럭 20여대가 준설골재를 반출하고 있는 것이 목격됐다.

현장 감독을 맡고 있는 전남개발공사측 관계자는 "CCTV를 통해 반출량을 측정하고 있는 만큼 밀반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주장했으나 뒤늦게 확인할 결과 CCTV 자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반출량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특히 이 같은 상황에서 외부로 반출된 골재의 성격이 불분명한 것 외에도 당일 골재운반에 동원된 일부 차량들은 반출량을 측정하기 위해 설치한 계근대 조차 통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조직적인 밀반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개발공사 K 현장 감독은 "모 국가유공자 단체에 배정된 10만㎥ 물량 가운데 일부 남은 물량이 반출되는 것이다"며 "해당 기관의 물량반출은 나주시가 통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전혀 관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나주시는 "20여 대 분량이 추가 반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밀반출 의혹을 시인하면서도 현재까지 사실 확인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한편 준설골재 선별 판매로 100억원 가량의 막대한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했던 나주시의 골재판매 수익금은 26억여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박수량 선생 묘소 청렴교육의 장 중앙공무원교육원 5급 승진자과정 교육생들이 최근 장성군 황룡면 금호리에 위치한 아곡 박수량(1491～1554) 선생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박수량 선생의 묘소에 세워진 백비(白碑)는 청백리((淸白吏)의 상징적 유물이다. 〈장성군 제공〉

담양 창평에 대형 건조·저장시설

15억 투입… 벼 1200t 수용

담양군 창평면에 대형 건조·저온 저장시설이 들어섰다.

담양군은 최근 창평농협에서 최희우 부군수와 전정철 군의장, 조영환 농협군지부장,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온 저장시설(DSC) 준공식을 가졌다.

그동안 창평과 고서, 대덕, 남면 주민들은 인근에 건조 저장시설이 없어 산물벼 수매를 하기 위해 멀리 떨어진 수북면과 금성면 RPC를 이용해야 해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에 군은 올해 산물벼와 건조벼 수매 확대는 물론 건조·저장 방법의 전문화를 통해 최상의 품질을 유지, 쌀 판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창평농협과 수북농협에 저온저장시설(DSC)의 증설을 추진해 왔다.

이번 창평농협에 준공된 저온 저장시설은 총 15억원의 예산을 들여 쌀 400M/T 용량의 소화할 수 있는 규모로 3기를 증설, 창평면 인근에서 생산되는 벼 1200t을 수용할 수 있게 됐다.

담양군 관계자는 "농촌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의 고충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b17@

장성 농업인 육성 '미래농업대학' 인기

농업전문 CEO 양성

장성군이 운영하는 '미래 농업대학'이 전문 농업인 교육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장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월부터 월 2회씩 총 20회에 걸쳐 '제 4기 미래 농업대학' 꿀벌학과와 포도학과 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차츰 질 높은 교육내용이 입소문을 타며 기존 교육생(107명) 외에 매회 30여명씩 청강하고 있다. 청강생들은 전남지역은 물론 전북 고창, 경남 산청 등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로 4기를 맞이한 장성 '미래농업대학'은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최고의 강사진 섭외로 전문적인 품목 교육은 물론 선도 농업인이 갖춰야 할 소양교육을 비롯해 전문교육으로 농업전문 CEO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성 '미래농업대학'은 ▲2008년 감학과·사과학과 76명 ▲2009년에 딸기학과·토마토학과 66명 ▲2010년 한우학과·특작학과 139명 등 총 281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들은 졸업 후에도 품목별 연구회와 학과별 동창회 구성 등을 통해 상호 정보교환으로 활발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과학 영농과 현장 실용화에 앞장서고 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장흥서 분당 서울대병원 무료검진 받으세요

28일부터 통합의료박람회 의료진 참여

"장흥에서 분당 서울대병원 등 국내 최고 수준의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무료 검진을 받으세요"

전남도는 오는 28일부터 10일간 장흥 천관산 일대에서 열리는 '2011 통합의학박람회'에 분당 서울대병원과 샘병원 등의 의료진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전통한방과 양방 협진체계를 갖춘 환자 중심 의료시스템인 통합의학을 육성하기 위해 열리는 통합의학 박람회에서는 주제관, 체험관, 기능성 제품관, 학술관, 사상체질 음식관 등 다양한 전시관이 운영된다. 또한 친환경 특산품 판매와 먹거리 장터, 정남진 국화축제, 기타 부대행사 등 볼거리와 체험거리도 풍성하게 마련됐다.

특히 질병 예방·치료관에서는 병원별로 최고의 의료진과 최첨단 디지털 시스템, 쾌적한 진료 환경 등도 소개될 예정이다.

각 병원 의료진을 통해 암, 관절, 척추, 통증, 아토피 질환, 비만, 안과질환, 치매 등의 진료와 치료과정을 파악할 수 있으며 박람회 현장에서 진료시연과 성인병 예방을 위한 질병 상담, 사상체질 감별 등 각종 검진과 검사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 전시관에 참여하는 병원은 분당 서울대병원과 샘병원, 샘통합의학센터, 화순전남대병원, 동신대 한방병원, 여수 백병원, 여수 요양병원, 국립나주병원, 운화생명과학 한의원, 밝은 광주안과 등이다.

배양자 전남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지난해보다 행사장을 50% 이상 확대해 국내 최고 병원들의 진료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수도권과 비교해 의료혜택을 받기 힘든 곳에서 열리는 행사인 만큼 많은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전 북

막걸리–'춘향이' 청주–'황진이' 소주–'황금보리 소주'

최고 전통 술 8개주종 17점 선정

전북지역의 대표적인 술이 선정됐다.

전북도는 '2011 대한민국 우리 술 품평회'에 참가할 도내 대표적인 술을 선정하고자 최근 전북도 생물산업진흥원에서 품평회를 열어 도내 전통술인 '이강주' 등 8개 주종에 17점을 뽑았다.

부문별 1위를 보면 생막걸리는 '춘향이 쌀막걸리', 살균 막걸리는 '전주모주', 청주는 '황진이', 증류식 소주는 '황금보리 소주', 일반 증류주는 '진심홍삼 인삼주', 리큐르는 '이강주', 과실주는 '내장산 복분자', 기타는 '주몽 복분자' 등이다.

이번 품평회에는 막걸리와 과실주, 증류식 소주, 기타 주류 등 총 37점이 경합을 벌였다. 이번 선정된 17점은 오는 28～29일 열리는 품평회 본선에 오른다.

특히 과실주와 생 막걸리 분야에는 각각 14점과 9점이 출품돼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심사위원들은 색상과 맛, 향, 뒷맛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고창 가을 하늘 비행 3일 고창 방장산 활공장에서 열린 '2011 한국 패러글라이딩 고창대회'와 '제7회 고창 군수배 패러글라이딩대회' 에 참가한 선수들이 가을 하늘을 비행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국내외 패러글라이딩 선수 100여명과 전국동호인 등 1000여명이 참가했다. /전북취재본부＝음창영기자 young@

한입에 쏘~옥 군산 미니고구마

전북 농식품 콘테스트서 대상

전북도 농업기술원이 개최한 '제1회 농식품 및 아이디어 가공제품 콘테스트'에서 군산의 미니고구마가 가공품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농식품 콘테스트는 전북 지역 식품의 신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우수상품을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열린 대회로 농식품 가공품 분야와 아이디어 제품 분야로 나뉘어 평가했다.

미니 고구마는 군산 (주)농민농산에서 출품한 것으로 국내 최초로 밤고구마를 미니 사이즈로 만들어 한 입에 먹기 좋게 만들고 그 위에 자색고구마 분말로 껍질을 입혀 작고 귀여운 고구마 모양을 만들었다.

또한 껍질을 따로 벗길 필요가 없이 구워서 만든 군고구마의 달콤한 맛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을 수 있는 편리함까지 갖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번 콘테스트는 무주 '하야가루 간장'이 최우수상, 남원 '라이스 젤리'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아이디어 제품분야에서는 완주의 오크통 숙성 감식초가 대상을, 장수 '웰미3'가 최우수상, 부안 '엄마뽕잎 수제 소시지'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김제 지평선 축제 170만명 다녀갔다

어제 폐막… 농경체험 등 관광객 오감 사로잡아

김제 들녘에서 펼쳐진 농경체험 프로그램이 관광객의 오감(五感)을 사로잡았다.

김제시는 "지난 29일부터 3일까지 김제 벽골제 일원에서 열린 '제13회 김제 지평선축제'에 170여만명(잠정 집계)이 방문했다"고 3일 밝혔다.

◇글로벌 명품축제 면모 보여＝ 축제기간 5일 동안 7개 분야 71개로 짜여진 독창적이고 특색있는 농경체험 프로그램은 연령과 세계를 초월해 농경문화의 진수를 제대로 보여줬다는 평가이다.

황금들녘 메뚜기잡기 체험과 우마차 여행, 낫으로 벼를 베고 홀테로 탈곡하며 쌀알이 만들어 지는 과정을 한눈에 느끼고 체험해보는 벼수확 체험, 추억의 새총·활쏘기 체험은 전문화된 농경대표 프로그램이 가족단위 관광객들로 부터 호응을 얻었다. 축제장을 찾은 외국인들 역시 벼수확 체험 등 농경문화 체험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했다.

시민과 전국에서 몰린 관광객 등 1333명이 참여해 333㎡ 대형 떡 모자이크 만들기는 한국기록원으로부터 인증서를 받았다.

◇관광객과 대동 어울림 한마당 연출＝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벽골제 전설 쌍룡놀이와 입석 줄다리기, 벽골제 쌍룡 횃불놀이 등 대동놀이이다.

청룡과 백룡으로 편을 나눠 관광객과 함께 한 '쌍룡놀이'와 수많은 관광객들의 인파가 장관을 이뤘던 '입석 줄다리기', 관광객과의 대동놀이로 연출한 '횃불 싸움놀이'는 관광객을 눈길을 사로잡았다.

'쌍룡 횃불놀이'에 참여한 김석환(48·경남 밀양시) 씨는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퍼포먼스가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김제시가 체류형 관광지로서 우리나라뿐만 아닌 세계적인 브랜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을 보았다"며 "생명농업의 선도역할을 하고 있는 김제 쌀의 우수성을 확고히 하는 큰 기반이 다져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제 지평선 축제'는 7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최우수 문화관광 축제로 선정된 바 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뉴스 브리핑

道교육청 학부모 대상 고교 입시설명회

전북도교육청은 5일 도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수험생 학부모를 상대로 2012학년도 고등학교 입시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서는 2011학년도 고입 전형 결과와 내년도 신입생 선발방식과 유의점 등을 소개한다. 도내 132개 고등학교 가운데 특목고와 특성화고, 자율형사립고 등 전기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다음달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학교별로 진행된다.

평준화지역 일반고와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자율형공립고 등 후기 고교 입학전형은 12월 5～9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실시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6일 군산·27일 전주서 희망 릴레이 취업박람회

'희망 전북 릴레이 취업박람회'가 6일과 27일 군산과 전주에서 각각 열린다.

전북도는 각 대학의 졸업을 앞두고 대학생과 도내 기업들 간의 구인 · 구직난 해결을 위해 6일 군산 월명체육관에 이어 27일 전주대 스타회관에서 릴레이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박람회 시간은 오후 2시부터다.

취업박람회에는 도내 100여개 기업이 참여해 면접 등을 통해 40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채용관, 취업 컨설팅관, 부대 행사관도 운영된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익산 보석박물관 보석상품 공모전 수상작 전시

익산시 보석박물관은 오는 16일까지 보석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보석문화상품 공모전' 수상작품 전시회를 연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 입상작품은 69점으로 아쉽게도 대상 수상작은 배출되지 못했다.

실물부분 금상은 오효근씨(익산에서 피어나는 AD 600년의 꿈)와 장혜진씨(익산을 간직하다)가 공동 수상했다.

렌더링부분 금상은 이수경씨의 '어메이징 익산(Amazing Ik-san)이 선정됐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남원 오늘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운영

남원시는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앞서 4일부터 시내 전지역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시범운영 기간중 기존에 배치된 음식물쓰레기 거점 수거용기가 회수되고, 단독주택은 문전배출 및 수거를 실시하며, 공동주택은 공동 거점수거방식으로 수거한다. 내년부터 부과되는 수수료 부과방식은 종량제 칩방식으로 ▲3ℓ 100원 ▲5ℓ 150원 ▲20ℓ 510원 ▲120ℓ 2800원이 부과된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